

브라질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채택

-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심의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금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Selic)를 0.5% 포인트 인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연 8.75% 결정
 -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한 자릿수 시대를 열었던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번에 또다시 0.5%를 추가로 인하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
 - * '09. 1월(13.75%→12.75%), 3월(→11.25%), 4월 말(→10.25%), 6월말(→9.25%), 7월말(→8.75%)
- 이에 따라 '09년중 기준금리는 총 5% 인하되었으며, 8.75%의 현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베이스로 종전 5.8% 수준에서 4.4% 수준으로 인하
 - 이로써 브라질의 실질금리는 중국 7.1%, 헝가리 5.6%, 태국 5.5%, 아르헨티나 4.9%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수준을 기록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 연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	16.50	16.50	16.25	16.00	16.00	16.00	16.00	16.00	16.25	16.75	17.25	17.75
2005	18.25	18.75	19.25	19.50	19.75	19.75	19.75	19.75	19.50	19.00	18.50	18.00
2006	17.25	-	16.50	15.75	15.25	-	14.75	14.25	-	13.75	13.25	-
2007	13.00	-	12.75	12.50	-	12.00	11.50	-	11.25	11.25	-	11.25
2008	11.25	-	11.25	11.75	-	12.25	13.00	-	13.75	-	-	-
2009	12.75	-	11.25	10.25	-	9.25	8.75					

자료출처 : 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현지 언론은 현재 브라질 국내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가 있고, 인플레이도 안정되고 있어 금년도중 추가적인 기준금리의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자동차의 금년중 국내 최대판매실적 예상 등 하반기 브라질 국내경제가 예상한 수준이상으로 회복되어 경기가 가열될 조짐이 보일 경우 인플레이를 우려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존재
 - 하지만 내년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한 지지표 잠식을 원치 않는 점과 현 중앙은행 총재의 내년도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Selic금리 8.75%는 2010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지난 7월 16일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2,096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며, 외환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는 지난 7월 20일 달러당 1.90헤알을 기록하는 강세현상이 지속중
 - '09년 1~5월 사이 브라질의 FDI 유치액은 112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0억달러에 이어 2000년 이후 10년만에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중이며, 올해중 브라질의 FDI 규모는 약 250억 달러로 전망
 - 미국 은행과 기업들의 예상보다 나은 2/4분기 실적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는 인식, 그리고 최근 버냉키 미 FRB 의장의 현재 금리수준 유지 발언 등 여러 제반 상황이 국제시장의 불안을 경감시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과 같은 신흥개발국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있어 브라질의 달러유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헤알화 강세 현상을 억제하고 내년 10월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초래될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확대하여 최대 약 3천억달러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

< 사옹파울루 사무소 제공 >